

논문집 발간 현황 소개

김낙경*1, 김홍택*2

1. 머리말

한국지반공학회는, 1951년 창설된 대한토목학회 내 하나의 분과로서 출발하여, 1984년 대한토질공학회라는 명칭의 전문학회로 독립하였고, 그 이후 한국지반공학회로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명실상부 우리나라 토목공학 학술분야의 중추적 전문학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왔다. 그동안 한국지반공학회는, 지반공학 분야를 국제화하고 정보화, 전문화하여 토목공학 내에서 의미 있는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세계적인 위상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였다.

한국지반공학회는, 1973년부터 연구 논문집 발간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 이르러는 다양한 지반공학 분야 모두에 걸쳐 활발한 연구 성과가 제시되는 논문집으로 자리를 잡는 등 눈에 띄는 발전을 해왔다. 특히 올해 2004년부터는 그간 회원 여러분들이 투고하는 가치 있는 연구 성과의 논문이 많아져, 국문 논문집의 발간회수를 연 6회로 늘렸으며, 또한 2회에 걸쳐 별도의 영문 논문집이 추가로 발간되게 되었고, 이외에도 정

기 봄 학술발표회에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내용의 논문은 심사를 거쳐 특별논문집 형태로 그 연구 성과가 정리, 제시되는 등, 연구 학술활동 차원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과거 2년 정도 동안의 논문집 발간 관련 현황을 저희 편집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분석, 정리하여 모든 회원 분들께 널리 알리고자 하며, 학회의 핵심인 연구 논문집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 등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2. 연구 논문집으로의 변천 및 성과

1973년 12월부터 지반공학관련 논문을 토목학회지 뒷부분에 별도로 게재하기 시작하여, 2004년 12월까지 30여 년간에 걸쳐 약 130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해오면서, 지반공학관련 연구 성과의 제시에 커다란 역할을 하여 왔다.

초창기 대한토목학회 내에 한 분과로 속해되어 있을 당시에는, 1973년 12월을 시점으로 연 평균 7편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학회지와 별도로 논문집이 발간된 것은 1982년이다. 이때부터 점차 활동이 활성화되고, 마침내 1985년 대한토질공학회로

*1 우리학회 논문집 편집위원회 간사,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nkkim@yurim.skku.ac.kr)

*2 우리학회 논문집 편집위원회 위원장,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표 1. 한국학술진흥재단 평가 점수

구분	평가항목	점수
1.	학술지명, 논문명, 저자명부분 표기형태	4 / 4
2.	학술지상 편집위원, 임원명단 및 소속명시	4 / 4
3.	학술지의 정시발행 여부	12 / *
4.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	4 / 4
5.	논문 게재율	9 / 8
6.	논문투고자의 전국성 및 국제성	3 / 1
7.	Cyber 출판 여부	3 / 3
8.	논문1편당 심사위원수	3 / 3
9.	제1저자 및 공동저자 구분	4 / 4
10.	논문초록 표기형태	4 / 4
11.	주제어부분 표기형태	4 / 4
12.	편집위원 연구실적 및 평균 재임기간	6 / 5
	계	60 /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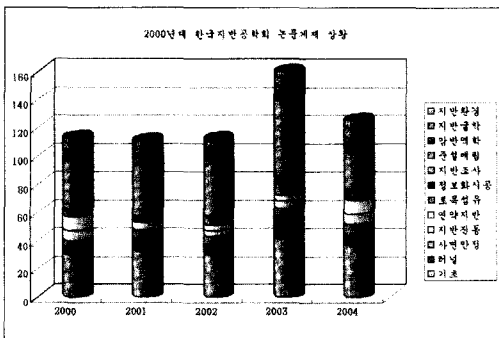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지반공학학회 논문집 게재논문 수 변화 현황

건설부의 인가를 정식으로 받아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이후부터는 논문게재의 활동은 뚜렷하게 증가되었다.

특히 뉴밀레니엄시대의 시작인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논문게재수가 단위를 달리하며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논문게재수를 보면 특히 2003년부터 뚜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2년 한해 게재된 논문수가 113편이었고, 2003년에는 160편으로 2002년에 비해 1.4배 정도가 증가한 통계를 보이고 있다. 2003년까지 9년간 게재된 논문수가 이전까지

게재된 논문 수의 3배가 넘는 사실을 볼 때, 전문 학술지로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지반공학 분야에 대한 중요성 및 관심 등이 증대되어 과거보다도 더욱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학술지 계속평가 - 해당 학술지의 체계평가로서 발행규정이나 발간횟수, 게재율 및 심사위원 등등에 대한 평가 - 에 의하면 한국지반공학학회 논문집은 학술지로서의 평가결과 60점 만점에 56점의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또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시행한 BK21 대학원 연구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학술지 등급 평가에서, 토목공학 분야의 A급 학술지로 평가받는 등 한국지반공학회는 이제 공신력이 있는 지반공학 분야 최고의 학회로서, 한국지반공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들은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03년 한국지반공학회를 통해 한 해 동안 접수된 논문 수는 166편으로, 전년도인 2002년에 비해 약 27%가 증가하였다. 또한 2003년 한 해 동안 한국지반공학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수는 160편으로, 2002년 접수되어 2003년으로 이월 심의된 논문과 기술 자료집에 수록된 논문수를 제외하면, 약 58%의 게재율을 보였다. 이는 과거에 비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참신한 심사자들의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의 게재율 보다 감소한 상황으로 생각되며, 2004년에는 그 심사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게재율이 57%로 감소하였다.

한국지반공학회는 기초, 터널, 사면안정, 지반진동, 연약지반, 토목섬유, 정보화시공, 지반조사, 준설매립, 암반역학, 지반굴착 및 지반환경 등 12개의 기술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별로 발표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심

표 2. 분야별 게재논문 수

	기초	터널	사면 안정	지반 진동	연락 지반	토목 철유	정보화 시공	지반 조사	준설 매립	암반 역학	지반 굴착	지반 환경
2000	30	5	5	7	10	6	0	34	2	5	5	4
2001	33	8	6	1	5	5	0	31	4	7	2	4
2002	30	7	6	4	4	6	1	39	3	6	4	2
2003	42	14	7	5	3	12	2	56	7	4	7	4
2004	37	7	8	7	10	5	0	27	7	3	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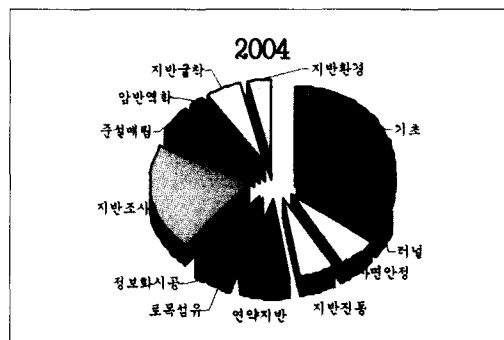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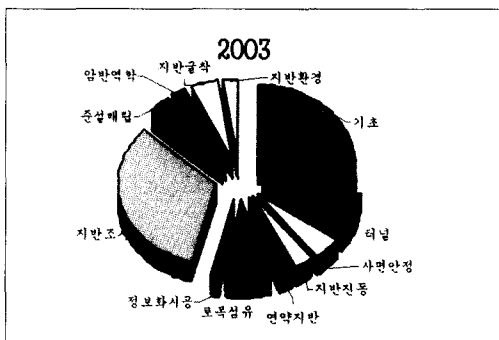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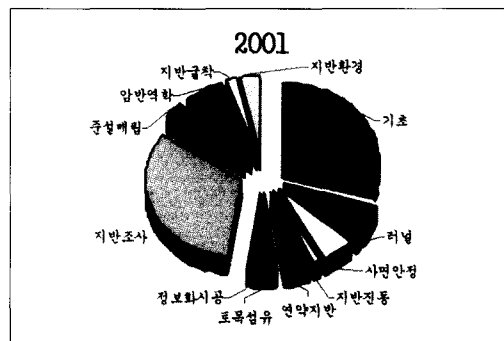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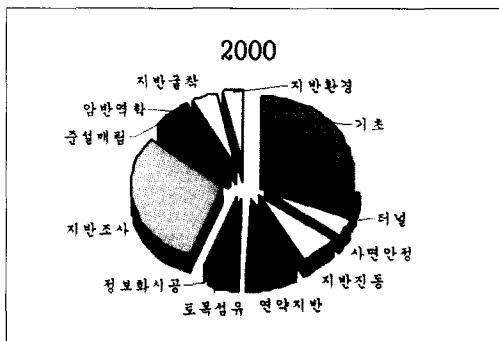


그림 2. 년 간 분야별 게재논문 수

도 있는 연구, 기술 개발의 기회를 갖고 있다. 각 분야들은 정기모임, 세미나, 강습회 및 독자 프로젝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간 각 분야별 논문게재수를 살펴보면 가장 광범위한 분야인 기초 분야나 지반조사 분야에서 비교적 많은 수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그 밖에도 우리나라 지형적인 특성상 많이 발달되어 있는 연약지반이나 터널, 사면안정 분야들

도 많은 연구 성과의 제시가 있었다.

최근 들어서 점차 분야별 게재논문 수가 고르게 분포되고 있는 현황이다. 특히 2004년도 12월까지 과거보다 더 고른 분포로 연구 성과가 제시되어 온 것을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각 기술위원회 분야별로 게재 논문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준설·매립 분야와 터널 분야에서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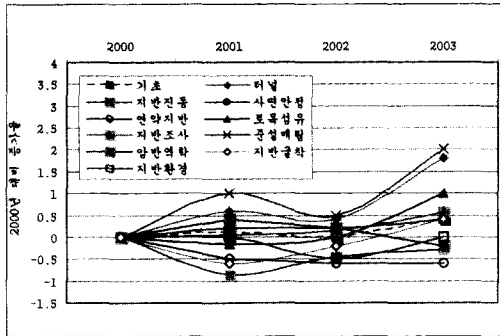


그림 3. 분야별 게재논문 수 변화율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토목섬유 분야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암반역학 분야와 연약지반 분야의 증가율은 다소 저조한 상태이다.

한국지반공학회 논문집에서는 21C의 국제화, 세계화 흐름에 발맞춰 영문논문의 게재에도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1996년부터는 매년 6월호 논문집을 영문 판으로 하여 최근까지 90여 편의 영문논문을 게재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연 2회로 늘려 영문논문집을 별도로 추가 발간하고 있다. 최근 2년간 한국지반공학회에 접수된 영문논문의 수는 2003년 25편, 2004년에는 30편으로 과거 8년간의 평균

통계에 비하면 급격한 증가추세인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지반공학회 논문집의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몸부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 계속되어야 하며, 회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연구 성과 도출 및 영문논문으로의 활발한 투고 등이 요구된다.

3. 결 언

한국지반공학회 논문집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85년 창간호가 발간된 이래 공인된 국내 최고 권위의 지반공학관련 학술지로 자리를 굳히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지금부터는 제2의 도약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SCI급 학술지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 노력이 부단히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지반공학회 모든 회원들의 질 높은 연구 성과의 활발한 도출이 계속되어야 하고, 또한 제도적으로는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